

지 상 범 석

“비뚤어진 말·생각·행동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⑩

諸位禪師來請開示 令我覺感愧
제위상시래정개시 령아원각감괴
諸位天辛辛苦苦 欣榮種地
제위현신신고고 감사종지
挑土搬磚 一天忙到晚
조토반전 인천망도만
也沒打失禪道的念頭
아물타실관도적념두
那種禪道的殷重心 實在令人感動
나종위도적은중심 실재령인감동

因緣會遇時 果報隨自受
인연회우시 과보환자수
楞嚴經說 因地不真 果報紆曲
능엄경설 인지부진 과초우곡

고덕이 이르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려
거든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고
내세를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게 그것
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가사 백천 겁이라도 지
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과 연이 만날 때에는 과보를 되돌
려 받게 된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 설하기를 씨뿌린 터가 참
되지 않으면 열매도 구부러진다고 하였
다.

故種善因結善果 種惡因結惡果
고종선인결선과 종악인결악과
種瓜得瓜 種豆得豆 乃必然的道理
종과득과 종두득두 내필연적도리
談到因果 我說兩件事來證明
담도인과 아설양건고사래증명
① 釋迦佛前 迦那城有一箇捕魚村
석가불전 가나바라성리 일개포어촌
村裏有箇大池 那時天旱水乾
촌리유개대지 나시현한수고

그대들이 늘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니
나로서는 부끄럽기도 하다.
그대들은 날마다 괴롭도록 나무하고
씨 뿌리며
흙 들우고 돌을 나르느라 하루가 출
쪽가매(저녁이 되지도 모르니)
도를 이루려는 생각조차 잊고 만다.
어떤 것이 도에 대한 은중한 마음이
며 실로 사람을 감동케 한 것인가.

虛雲新姨 無德無德 說不上所謂開示
허운합과 무도무덕 설불상소위개시
只是給古人幾句話 來勸善立之門而已
지시습고인기구언타 래수제위지문이기
用力禪道的方法很多 現在且略略說說
용공관도적방법한다 현재차략약설설

“전생 알려거든 금생에 받은 그것이고
내세 알려거든 금생에 지은 바 보라”

無論甚麼人 尤其想用力禪道的人
무론심마인 우기상용공관도적인
先要深深因果 若不深深 勸化何爲
선요심신인과 약불신인과 망작호위
不要說禪道不成功 三塗小他不了
불요설관도불성공 삼도소타불료

허운은 부끄럽다. 도도없고 덕도 없어
발상에 오르지 않고 이른바 법을 설하
니

다만 옛 사람의 몇마디 말씀해 놓은
구절을 추려서 그대들의 질문에 대꾸하
노라.

애써 수행하고 도를 이루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요약해서 설하리라
물론 누구라도 수행하여 도를 이루려
는 사람은
먼저 깊이 인과를 믿어야 한다. 만약
인과를 불신하면 망녕되어
도를 이루려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거니
와 성공하지도 못하니 삼악도의 작은
것도 요득할 수 없다.

古德云 欲知前世因 今生受者是
고덕운 욕지전세인 금생수자시
欲知來世果 今生作者是
욕지래세계 금생작자시
又說 假使百千劫 所造業不亡
우설 가사백천겁 소조업불망

고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
는다.

외를 심으면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은 필연적 도리이다.

말이 인과에 이른김에 두가지 고사를
들어 설명하겠노라.
① 석가모니 부처님 나시기 전에 가
비라성에 한 어촌이 있었다.
이 어촌 가운데 큰 연못이 있었는데
어느 때 가물이 들어 물이 말랐다.

池裏的魚蝦給村人取喫
지리적어류급촌인취喫
最後剩下一尾最大的魚 也被拿殺
最後剩下一尾最大的魚 也被拿殺
최후일개하일최대적어 아피광살
祇有一箇小孩 從來沒有喫魚肉
祇有一箇小孩 從來沒有喫魚肉
기유일개소해종래불유취어유
僅那天做了大魚頭三下玩耍
근나천고료대어두삼하래완요

못 속의 고기들을 마을 사람이 모두
잡아 먹었다. 맨 나중에 가장 큰 물고기
가 잡혔는데 이것 또한 평상 당했다.
그때 한 아이가 있어 예로부터 고기
를 먹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장난삼아 큰 고기의 머리를
세 번 두드리게 되었다.

우리가 많이 읽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화경》을 읽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물론 《법화경》뿐 아니라 모든 경전
을 읽는 마음과 생활하는 마음이 다 하나
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오늘의 이야
기를 여러분 마음 그릇의 모양새대로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가난과 괴로움과
빈곤이 더욱 인해서 해결되는데 일시적
인 해결이 아닌 낫생을 두고 해결됩니다.
한 번 《법화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낫생,
맛약값을 통해서 태어나도 가난과 괴로움
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
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묘
법이고 묘법은 곧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
라밀은 진리고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을 본
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글자만 있다고 보
면 어려운 분입니다. 즉 글자에만 집착하고
소리, 용어, 언어에 의존한다면 참다운 부
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
용어를 통해 나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사
도에 있는 사람이어서 결코 나를 볼 수 없
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상묘법이라는
것은 이 할나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상

“몸과 마음은 하나
들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지 않는사람”

을 보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아 번뇌 망상이 저절로 가라앉게 되어 있
습니다. 정진하는 사람에게 ‘번뇌를 없애라
망상을 벗어나라. 번뇌의 불꽃을 없애므로
씨 너는 진정한 불성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상법 하나만 알고
있어도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주 행복한 경우
를 만났을 경우 그 행복한 마음에는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아주 조율하고 맑은데 실상을 보는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그 마음에 추호도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상은 곧 부처님이라 했습니다
만 부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
려운데 지꾸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마음이
한 번 어려운데 걸리게 되면 한 번이 네
번되고 네 번이 여덟 번 되고 여덟 번 걸
리던 것이 열여섯번 걸리게 되어 한마음
잠깐 잘못 굴리면 그 한생각으로 인하여
팔만사천 가지 번뇌에 가득차서 고통을 못
하게 됩니다.

부처님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단
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실상
을 본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들

고성스님
미국학부사회주

- 53년 범어사에서 득도
- 70년 도미, 월드 쟈넨타서 인거
- 72년 콜롬비아대 학사 철학박사 학위 취득
- 78년 메릴랜드에 한국사 건립
- 79년 이메리칸 쟈넨리지 설립
- 현재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동양철학, 한국 선 등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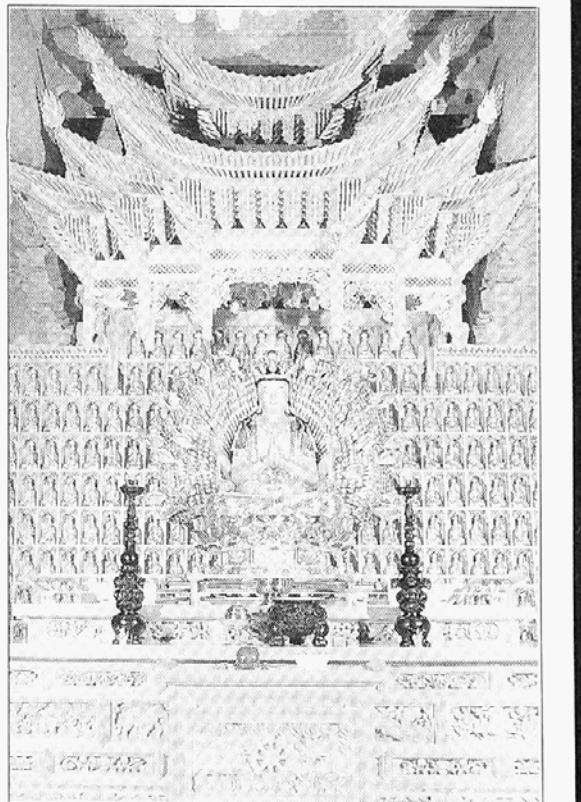


는 사람 마음은 정직하게 들릴 않아요. 모
두 마음이 들립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는 그러하지만 나의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려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듣기 시
작하면 그때부터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간단하나요.
마음 하나에 몸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국
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삼매입니다. 일
민까지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능력이며 그
능력이 더 깊은 삼매를 가져오며 부처님의
위력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불법은

원만한 가치입니다. 더러운 것부터 깨끗한
것까지 차별없이 두루 수용하는 원만한고
조화로운 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양과 색깔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서 비롯되는 형상일 뿐입니다. 바위에 나뭇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무가
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바위가 부
니가 흔들린다고 보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나무도 바람도 그
흔들리는 원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자세가 어
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야야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마음 자

세가 틀리면 아무리 지식이 높아 많이 알
아도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안다는 생
각에서 이중 삼중의 말들이 튀어나와 겹잡
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마음은 한순간도 가만있지 않고 또
고 가라앉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같이 있으면 떠난 사람과 비교되고 잘 나
보고 싶고 경쟁하고 싶어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추를 단 듯한 무게
를 짊어지고 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무게가
있으면 불편하고 탐진치에 빠져들어 광만
사천번뇌에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
의 무게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
라 합니다. 불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
을 알면 아는 것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